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예배

성 경 ..... 전 4:9-12

설 교 ..... **세 겹 줄은 강력합니다!**..... 김하철목사

2020년 8월 21일 오후 8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회

예 배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EM 예배	주일 오전 9시 45분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시 15분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유치부-유년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금 오후 8시
교회학교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10:15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 10시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시 45분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환영과 감사>

주일공동예배(KM, EM, Youth, 각종 주일학교)는

정부 지침에 의거 잠정 중단되며 영상을 통해 개인별로 드립니다.

<영상예배>

- 6/13 이후 우리 교회에서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제한 조치를 계속 연장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online 예배 및 교회 활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함.

차후 변경 및 준비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 통보함.

(전담팀: 세부 사항 계속 준비 중)

<코로나-19 공지사항>

- 건강 유의 사항과 어스틴 지역 무료 코로나-19 검사 안내에 대한 정보는 교회 웹사이트 참고(홈/코로나-19 공지사항/메뉴, <https://www.akpc.org/530764719645208-19-44277516484932454637.html>)

<고국 광복 기념> : 75주년

-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 현 혼돈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애국가 제창 후 합심 기도)

<애국가>

- 기도/애통의 마음: 전반적 치유, 자유, 생명의 회복(원 위치) 위하여

<새가족 소개>

- 목장이나 개인별로 연결된 새 가족을 영상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람.

<목회자 동정>

- 황규민 목사(영어 목회 - 황영진 사모)는 8월 23일 자로 사임. 미국 동북부 지역 교회에 부임하심.

<출산>

- 정루나 지은 (딸): 산모: 이은정 교우(정진웅 교우) 8월 3일 아기, 산모 건강함. 축하와 기도 부탁 (모리아 목장)

<이주>

- 최경언 형제/이신 자매(자녀: 지성) (엔게디 목장) - 한국으로 (부산)

<가정별 목장별 기관별 활동 영상 나눔>

<토요한국학교>

- 가을학기는 온라인으로 수업. 개강: 8월 22일(토) 문의: 김효진 집사 ([hellozini@gmail.com](mailto:hellozini@gmail.com))

<선교 홍보 기도> 태국 한준수/이옥희 선교사

<교회 주차장 공사> 영상 소개

<치유를 위한 기도>

김기원 집사(길갈남), 조현철 집사(벤엘), 오보영 집사(에덴), 정정님 권사(길갈남), 김하철 목사, 박근석 집사 (청년부)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전 11:1

목 사 : 이 승 태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FAX: (512) 454-6888

Email: [akpc@akpc.org](mailto:akpc@akpc.org) Homepage: [www.akpc.org](http://www.akpc.org)

## 성령강림 11째 주일

### 1부 예배

2020년 8월 16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이승태목사

Liturgist: Rev. SeungTae Lee

\*개회기원 ..... 인도자  
(Call to Worship) Liturgist

\*송 영 ..... 울갠(백기숙집사)/피아노(정유리집사)  
(Hymn) Organ/piano

기 도 ..... 서병도장로  
(Prayer) Elder Randy So

성경봉독 ..... 사 58:6-9상, 요 8:32-36 ..... 김선숙집사  
(Scripture Reading) (Isaiah 58:6-9, John 8:32-36) Deacon Seonsuk Kim

설 교 ..... 풀어주라 ..... 이승태목사  
(Sermon)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436 (통 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회 중  
(Responsive Hymn) (Lately the life of Christ) Congregation

헌 금 ..... 손지영집사  
(Offering)

\*봉헌기도 ..... 이승태목사  
(Offertory Prayer) Rev. SeungTae Lee

성도의 교제 ..... 인도자  
(Fellowship of Saints) Liturgist

애 국 가  
(Korean national anthem)

\* 찬 송 ..... #582 (통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회 중  
(Hymn) (Unto hearts in deep night pining) Congregation

\*축복 및 축도 ..... 이승태목사  
(Benediction) Rev. SeungTae Lee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이상엽장로(기도), 손인숙집사(성경봉독)

## 풀어주라 (사 58:6-9상, 요 8:32-36)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 목회서신

### 드라마와 인간



어렸을 적에 들은 슬한 동화의 끝은 똑같다.

“그래서 둘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 오래 잘 살았단다” 이다.

어떤 동화는 주인공이 다시 어디론가 떠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석양을 향하여 또 다른 상황을 만나러 뚝뚝뚝 걸어간다.

카메라는 그 “호보”의 꼬리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에서 부터

드라마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시 시대는 제사적 동작이며 신앙의 표현이다.

광대 놀이는 사회적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통쾌함과 저항을 대신한다.

거기서만은 상놈이 양반을 조롱할 수도 있다.

실체가 아닌 상황을 다른 존재를 통하여 실제보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강력하게 행동한다.

그것은 권선징악을 통하여 인간 원형의 회복을 가르친다.

대체로 주인공(protagonist)은 선하며

조연(antagonist)은 악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주인공은 하필 조연에게 모함을 받거나 시련을 당한다.

시련 없는 주인공은 없다. 때로 그는 절규하며 통곡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끝까지 버티어낸다.

때로 명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드라마는 반전이 거듭될 수록 명작이다.

예술적 표현은 필수 요소가 된다.

성경은 한 편의 큰 드라마로 엮어져 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원작이다.

그 드라마의 무대에 내가 서 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 작가의 시나리오이다.

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그 안타고니스트는

나의 실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치유와 자유를 분출해낸다.

오늘도 무대 한 칸에서 명작의 한 부분을 엮어가는 그대를 생각한다.

이승태